

“빈약한 자의 강한 애소(哀訴)”

■ 이종윤 원로목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사41:1) 즉 가난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다. 물질적 가난을 말씀한 것인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5:3)라고 하심으로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 마음이 빈약한 자, 사회적 위치가 미약한 자,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고난을 당하는 자를 가리키신 것이다. 이런 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빈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빈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하신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다. 시편 41편에 의하면 재앙의 날에 그를 지켜 주신다 했다.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병들어 눕게 되더라도 고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공황히 여기는 자는 공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만하여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파산자(Spiritually bankrupt)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은 죄와 부패로 더러워진 존재임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산상보호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받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며 노래했다. 이처럼 십계명 즉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죄인된 인간에 의해 성취될 수 없음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미 밝히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 자복하는 이에게는 희생제물을 바칠 때 죄를 용서하시거나 자기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율법의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우선이라 책망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다윗은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시 41:10)라는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사상과는 배치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왕으로서 다윗은 원수를 멸할 힘을 달라는 통치자의 책임을 하는 기도를 한다. 병중에서도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오히려 율법은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말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이들만이 율법을 성취시킬 수가 있다. 중생치 못한 이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속에 없는 이들에게 산상보호를 말씀하는 것은 이리와 양이 한 구유에서 먹는다는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둔단 새로운 성품이 먼저 요구될 때 실현될 수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채우기 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 영적으로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 새 술을 붓기 전에 옛 술을 부대로부터 버려야 한다. 패한 후 흥하게 되고(눅 2:34) 채우려면 먼저 비우라는 것이다. 회심 전 회개를, 구원 받기 전 하나님 면전에서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산상보호의 말씀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이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 안에서 심령의 가난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인간의 심령은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 하는 이가 있으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이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비로소 겸손해지고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가 복될 것이다. 우리는 “화로다 나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 이사가처럼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음으로 당신 자신에 관해 잊어버리고, 자신을 작고 더러운 존재로 보고 자신의 관심에 관해 잇는 것이 더 좋다. 그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게 될 것이고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애소(哀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이전처럼 교회에서의 예배와 온라인예배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역지침 변경 시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일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유·초등부는 대면 예배로, 영·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예배안내-
※ 수요 1부 예배, 새벽기도회는 비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 2부 예배는 녹화영상으로 진행됩니다.
※ 또한, 다음 주일 1,2,3부 예배, 찬양예배도 비대면 실시간예배로 진행됩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71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서울교회QR코드  |
| | | |

|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합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한미소(일본), 김남혁·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병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임(팔라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

■ 막 9:23-29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가셨을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며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 주리라고 강담했지만 고쳐주지 못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후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신앙적 해법이 무엇 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 고통당하는 아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을 하신 후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접하신 난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 이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17-18절) 이 아이는 아주 어려울 때부터 말을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증의 간질 증세도 보였습니다. 때로는 불과 물도 구분 못 한 채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17, 20, 25절은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생긴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아이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이로서는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귀신의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세대들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3번 하셨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12살 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눅 7:11 이하) 이처럼 예수님은 젊은이들의 불행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두고 갑문열막이 이어졌습니다.(14절) 말은 많고 논쟁은 격렬했지만 실제적 문제 해결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 책임 있는 사람들의 고민
 이 현장에 대체로 세 종류의 고민이 드러나 보입니다. 고통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있고, 이 불행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고민이 있고,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없는 제자들의 당혹함과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나이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절망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나섰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동원되었지만 이 모든 노력은 전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지적해 주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겠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22절)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24절).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즉시로 이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본 제자들도 고민에 빠져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28절) 이에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29절)고 하므로 제자들의 기도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칠 자신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지만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정성의 부족, 학문적 방법의 잘못, 물질적 뒷바라지의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믿음과 기도의 부족이 근본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문제의 현장에 오셔서 불행과 고통에 빠진 아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생은 누구를 만나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삶을 훈련 받는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중요하지만 스승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삼상 1:21 이하) 그때부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을 스승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고, 왕정 제도를 수립하고, 사울과 다윗을 발탁하여 왕으로 세우는 등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한 민족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키워준다면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영적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상을 보는 영적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라’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3).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겨 봅시다. 내 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키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디시고 치유하시고 신명과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은혜를 믿읍시다. 아이들과 교회학 교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맙시다.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여름이 그런 계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 Sunday Worship Service | | |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Time | Pre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서명철 목사 | 안인호 장로 |
| II 오전 11시 20분 | 장석남 목사 | 오광환 장로 |
| III 오후 2시 | 조원영 목사 | 조원영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5:19-2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5(시 103)...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88(88)...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막 9:23-2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46(500)...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47:1-2 인 도 자
 찬 송 270(214) 다 합 께
 기 도 주영도 집사
 성 경 수 9:16-2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화친을 청합니다” 설 교 자
 * 찬 송 320(35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 부 석상화 권사
 성 경 수 11: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해변 모래 같은 대적들”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웨스트민스터 홀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 회 소 식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이번주 심방 일정**
3-9~10, 6-4, 10-5~6다락방
-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결 혼**
1. 이하경 군(방글라데시 이경엽 선교사, 송은옥 사모의 장남) 레베카 조이 카스텔린 양 / 7월17일(토) 오후 12시 부산 수안교회 본당(051-555-4017)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방역지침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 (7.12.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비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비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일예배 | 새벽기도 |
|----------|------|---------|-------|--------|
| 1,572명 | 510명 | 2,082명 | 576명 | 2,935명 |

🌳 자기 우상을 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망하게 된다고 선포케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도 없거니와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다고 황금우상, 명예우상, 쾌락우상, 심지어 자기우상까지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자.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나 종교적 헌신과 봉사가 결국 자기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토해 버리실 것이다.

모든 우상, 특히 자기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